

금주 Contents - 해양안전 이슈

해상안전과 보안 강화 등 남북 해양 교류협력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개발 필요

IMO, 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활동 근절에 관한 회람문서 승인 a)b)c)

■ 제100차 MSC 회의('18.12.3~12.7)에서 해상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는 불법 관행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됨

- 이 MSC 회람문서(MSC.1/Circ.1602)¹⁾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관행에 관해 상기시키고, 해사안전 및 보안에 관한 협약 이행을 강력히 요청함
- 북한은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²⁾ 또는 IMO 선박식별번호³⁾를 조작하거나 선박 및 화물에 관한 서류 위조, 선박간 환적을 통한 불법적인 선박의 화물 교체 등의 불법 해상 활동을 해오고 있음
- 그 중 선박의 안전한 항행에 필수적인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및 IMO 식별번호제도는 해사안전 및 해상 보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와 관련된 국제협약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이러한 불법 해상활동은 해상 안전 및 보안을 위협하고 있으며, 유사한 불법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IMO 회원국들의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있음
- 이 회람문서를 통해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상기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됨

■ 한편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결의서를 채택함

1) MSC.1/Circ.1602 :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employ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s): 해상에서의 선박 안전을 위하여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장치로, SOLAS 협약 제5장에 따라 대상선박 탑재를 강제화하고 있음
3) IMO 선박식별번호(IMO Ship Identification Number): SOLAS 규정 XI-1에 따라 모든 대상선박은 IMO가 채택한 선박식별번호를 가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박의 종류, 위치, 국적 등의 항행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음

-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는 결의서 제2397호(2017.11.29.)⁴⁾ 등 북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해운 부문에서도 북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 검사 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음

2018년 미국 등 20여 개국이 북한의 불법해상 활동 개선 및 대응책 마련 논의 ^{d)}

■ 불법 해상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가 협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성을 인식함

- 2018년 1월 16일 한국, 미국 등 20여 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한의 불법해상 활동 개선 및 대응책 마련 등을 논의함
-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 차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반도 인근 해역에 군함과 정찰기를 보내는 등 대응 조치를 점차 강화하고 있음

■ 미국, 영국, 호주 등이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해상활동 감시·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

- 2018년 11월 미국 및 영국 정부는 해상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함
- 또한 호주는 대북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해상 활동 감시를 목적으로 일본 해역에 해상 초계기를 배치하였으며, 호위함 'HMAS 멜버른'의 동중국해 파견을 통해 선박들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고 있음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해상안전 및 보안 위협 사례 증가 ^{e)f)}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외교관 자료를 인용하여 2018년 8월 중순까지 유조선 24척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석유를 수송하였으며, 주로 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통해 이뤄진 거래인 것으로 추정함

4)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397호는 유엔의 제재를 어기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행위에 대한 대북제재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 해외 파견 노동자의 24개월 이내 송환, 수출입 금지 품목의 확대, 해상 차단 조치의 강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임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2019.02.19. 검색\)](https://ko.wikipedia.org/wiki/(2019.02.19. 검색)))

- 특히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공해상에서 유류 등을 주고받는 선박 간 환적 행위가 포착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소형어선 표류 등 연안 해상활동에서의 해상안전 및 보안 문제 또한 우려됨

- 일본 해상보안청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일본에 표류한 북한 어선사고가 220건으로, 전년도(130건) 대비 1.7배정도 증가했다고 밝힘
- 대부분의 북한 어선은 목조구조 및 선저의 형태 등으로 인해 선박 안정성 문제가 지적되며, 전복 및 좌초 사고 등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일본으로 표류하는 북한 어선이 증가로 인해 인근 해역 주민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으며 일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한반도 해역의 연안 해상활동에 대한 해상안전 및 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남북 공동 한강 수로조사 등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남북 협력사업 추진 중

■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한강 수로여건 조사 및 남북 협력 사업을 수행함

- 지난 1월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 등 수로조사를 완료하고, 암초 21개 발견 등 선박항해에 필수적인 해도 제작을 완료함
- 이번 조사는 향후 한강하구에서 운항될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필요한 기본 수로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연안안전 강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해수부는 앞으로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정밀 해저지형 조사 및 장기 조석·조류 관측도 진행하여 한강하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임

■ 남북한 해양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함^{g)}

- 남북한 경제 분야 협력, 인도주의적 교류,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회담 등은 성과의 창출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현재 해양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음
- 앞으로 남북 해양 교류협력의 모멘텀 마련을 위한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남북 협력을 위한 향후 과제로 해양안전 강화 및 인식개선 등의 노력 필요

■ 한반도 인근 해역의 해상 안전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추진 검토

- 한반도 인근 해역은 해운·항만분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박 통항로이며, 이 해역에서의 해상안전 및 보안 강화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과제임
- 이에 해사안전 및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의 의무사항의 이행 및 지속적인 남북 협력을 통해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번 남북 공동 한강 수로조사를 시작으로 남북 해양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해상 안전 및 보안 강화 분야의 중장기적인 전략방안을 마련하는 등 남북 협력을 위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임

박혜리 전문연구원

해운해사연구본부 해사안전연구실
(hrpark@kmi.re.kr / 051-797-4629)

참고자료

- a) <https://www.wsj.com/articles/fake-signals-and-illegal-flags-how-north-korea-uses-clandestine-shipping-to-fund-regime-1543402289> (2019.02.15. 검색)
- b)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employed b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SC 100/19/9, 호주/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
- c) Report Of The Maritime Safety Committee On Its One Hundredth Session (MSC 100/20, Secretariat)
- d) <https://www.voakorea.com/a/4739607.html> (2019.02.15. 검색)
- 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8/201811280126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19.02.19. 검색)
- f)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218_0000561268&cID=10101&pID=10100 (2019.02.19. 검색)
- g) <http://www.kmi.re.kr/web/trebook/list.do?rbsIdx=273&page=4> (2019.02.15. 검색)